

# 조선어언어력사연구

朝鮮語歷史研究

리득춘



# 조선어언어력사연구

朝鮮語歷史研究會

리득춘



홍익  
조선민족

간송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语历史研究/李得春编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3

ISBN 7 - 5389 - 1305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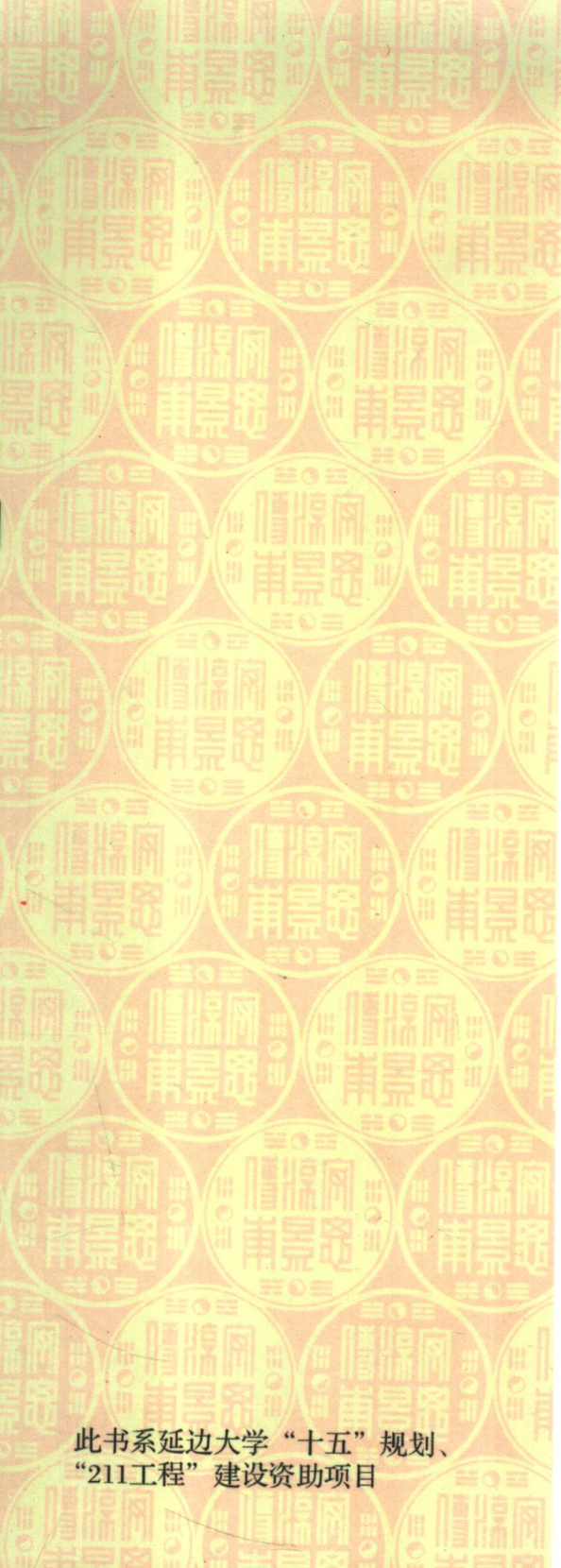
I. 朝... II. 李... III. 朝鲜语—语言史—研究—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H55—0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18390 号

书 名/ 朝鲜语历史研究  
编 著/ 李得春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31.75  
字 数/ 580 千字  
版 次/ 2006 年 3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3 月第 1 次印刷  
印 数/ 1 - 1 000 册  
书 号/ ISBN 7 - 5389 - 1305 - X/H · 70(民文)  
定 价/ 46.00 元

---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此书系延边大学“十五”规划、  
“211工程”建设资助项目

## 总 序

《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系列研究丛书》即将陆续推出。此系列丛书集中了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十五”期间所取得的重要科研成果。

延边大学是一所民族特色鲜明的综合性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自建校初期就开始担负起本大学教学、科研的重任。经过半个多世纪的建设和发展，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不仅成为延边大学的龙头学科之一，而且在国内外同类学科当中也确立了其独特的地位。本学科于2002年被评为国家级重点学科。

在上世纪90年代，尤其在“十五”期间，随着延边大学“211工程”建设的全面展开，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的建设也迎来了全新的机遇和进一步发展的的大好局面。以“凝练学科方向、强化学科交叉、发挥双语双文化特色优势”为主要思路，通过人才引进和师资队伍建设和教学科研体系的全新规划等一系列卓有成效举措的相继实施，本学科在教学、科研领域得到了长足的发展。

在科研项目的规划与实施上，本学科本着紧跟学科前沿领域研究的宗旨，力争体现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所独有的特色与优势。“中国文字音韵对朝鲜(韩国)文字生活的影响”(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中朝韩日诗歌比较研究”(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朝鲜族民俗文化及其中国特色研究”(国家人文社会科学基金项目)、“朝鲜实学派文学与中国文化之关联研究”(教育部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韩国古典美学思想研究”(教育部普通高校人文社科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等大型项目的实施，不仅体现了本学科现有的科研能力和水平，更体现了本学科在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领域中其他国内外学科所无法比拟的科研特色与优势。

本学科特色与优势的核心就是“双语双文化”。延边大学地处中国东北，毗邻朝鲜、日本，使得本学科具备了兼具朝鲜(韩国)语言文化与中国语言文化或日本语言文化的双语双文化比较研究的优势。本学科大多数成员除了熟练掌握朝鲜语与汉语以外，还能比较熟练地使用日语或英语，形成了双语双文化或多语种多文化的科研优势。因此，本学科在国内外朝鲜·韩国语言文学研究领域具有跨语言、跨国界、跨意识形态的特殊科研优势。

同时，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国际上的地位日趋显著，尤其随着中日建交、中韩建交，中国与韩国、日本、朝鲜等东亚各国的经济、文化交流的迅速发展，朝鲜语言文学学科在全国各大学相继建立。在国际上，朝鲜语言文学学科也具有比较重要的地位。在中国，无论是对促进文化发展和高等教育的国际化，还是促进经济建设，朝鲜语言文学学科都具有非常重要的地位。

认清自身的优势和特色，加以合理的发挥，以此来推进学科建设和科学研究，这正是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长时间的建设实践中总结出来的宝贵经验，也是本学科所一贯坚持的原则和基本思路。

此次推出的系列丛中不仅包括朝鲜·韩国语言文学领域的研究，也有朝鲜·韩国语言文学与中国、日本以及其他国家语言文学的比较研究，此外还有朝鲜·韩国语言文学的教学研究。一言以蔽之，此系列丛书充分体现了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在“十五”期间取得的科研成就。

正如上文所述，延边大学朝鲜·韩国语言文学学科的发展，正是得益于朝鲜·韩国语言文学在国内外的学科领域里地位的提高以及影响，本学科所取得的成果更是令人瞩目、前所未有的。如不注重这些学科发展所必需的环境，“孤注一掷”、“闭门造车”，是不可能取得任何成就的。

此系列丛书的推出，其目的之一就是将这些成果呈现给国内外广大的学者、教授、研究生等同仁们，广泛接受他们的批评，进而通过交流和切磋来实现取长补短，最终的目的当然还是要共同推进朝鲜·韩

国语言文学学科的发展。

最后向此系列丛书的编撰者以及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的编辑同志们表示深深的谢意。

蔡美花

二〇〇六年元月

# 머리말

이 책은 《연변대학211공정프로젝트(延邊大學10·5-211資助項目)》 성과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조선어의 언어사적인 변천과 관련된 것이다. 구성상 크게 연구편과 기초문헌편으로 나뉘는데 연구편은 다시 고대편, 중세편, 근대편, 현대편 등 시기별로 갈라 묶었다. 연구편은 총 21편의 논문으로 엮어졌다.

언어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15세기에 와서야 자기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게 된 조선어의 역사적인 고찰은 더욱 그러하다. 문자창제이전의 서사체계가 가지고있었던 특수성과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중세이전시기의 음운, 어휘, 문법적인 특징을 정확히 고찰하는것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 조선어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음에도 기초적인 언어현상에서부터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것 역시 이러한 원인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어의 발전력사가 지니고있는 이와 같은 불투명성외에 문헌자료의 부족, 학문연구진의 결핍 등 여러 방면의 제한으로 중국에서의 조선어력사연구는 더욱더 힘겹게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그나마 이 책이 이루어질수 있는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일부 글들은 필자들이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던 시기에 쓴것이라 학문적으로 새로운 발견은 부족할지 모르나 특정한 언어현상에 대한 종합과 정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있는 작업이라 할수 있다.

이 책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로움이 특히 많았던 몇사람이 있다. 우선 이 책의 편집과 입력, 설계, 교정을 맡아주었던 황영철, 김홍련 두 박사의 로고가 많았다. 이에 감사함을 전한다. 다음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를 많이 한 연변대학 중조한일문화비교연구중심의 최산옥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이 조선어의 발전력사를 료해하고 연구하려는 모든 학도들에게 유익한 도서가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2005년 12월 28일 편저자로부터

# 차례

总序 .....	蔡美花◆	1
머리말 .....	리득춘◆	1

## 고 대 편

조선민족의 언어력사관과 문자관 .....	리득춘◆	3
조선어와 문자 .....	리득춘◆	11
향가의 격형태 일별(一瞥) .....	리홍매◆	67
《대명률직해》에 나타난 용언토 .....	럼광호◆	76
우리 말 받침소리에 대한 사적고찰 .....	김영수◆	99

## 중 세 편

조선어 거센소리 현상에 대한 약간한 고찰 .....	김광수◆	109
된소리형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황영철◆	119
조선어 고유어의 어음형태변화에 대하여 .....	채옥자◆	144
최세진과 그의 저서 《훈몽자회》 .....	리득춘◆	161
15세기 조선한자음의 실제와 16~17세기 현실한자음 .....	리승자◆	177

## 근 대 편

조선한자음의 정리와 규범 .....	리승자◆	197
《화어류초》에 나타난 어휘에 대한 검토 .....	김철준◆	217

17세기 우리말 계층에 대한 약간의 고찰 .....	김광수◆	234
객체높임법의 소실과 청자높임법 등급의 변화 ...	김귀옥◆	249
개화기 조선어의 청자대우법 연구 .....	엄 녀◆	266
개화기잡지어휘에 반영된 몇가지 특징 .....	김홍련◆	284
개화기잡지어휘의 기본양상 .....	김홍련◆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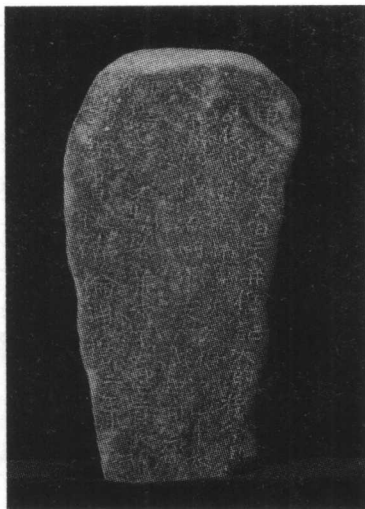
## 현 대 편

광복후 조선어 문법연구 흐름 .....	김광수◆	319
우리 말 문법연구 흐름에 대한 고찰 .....	김영수◆	341
20세기 한국어 연구에서의 서구 언어이론의 유입 .....	(한국) 임형재◆	360
조선어 품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상 차이에 대한 고찰 .....	김 일◆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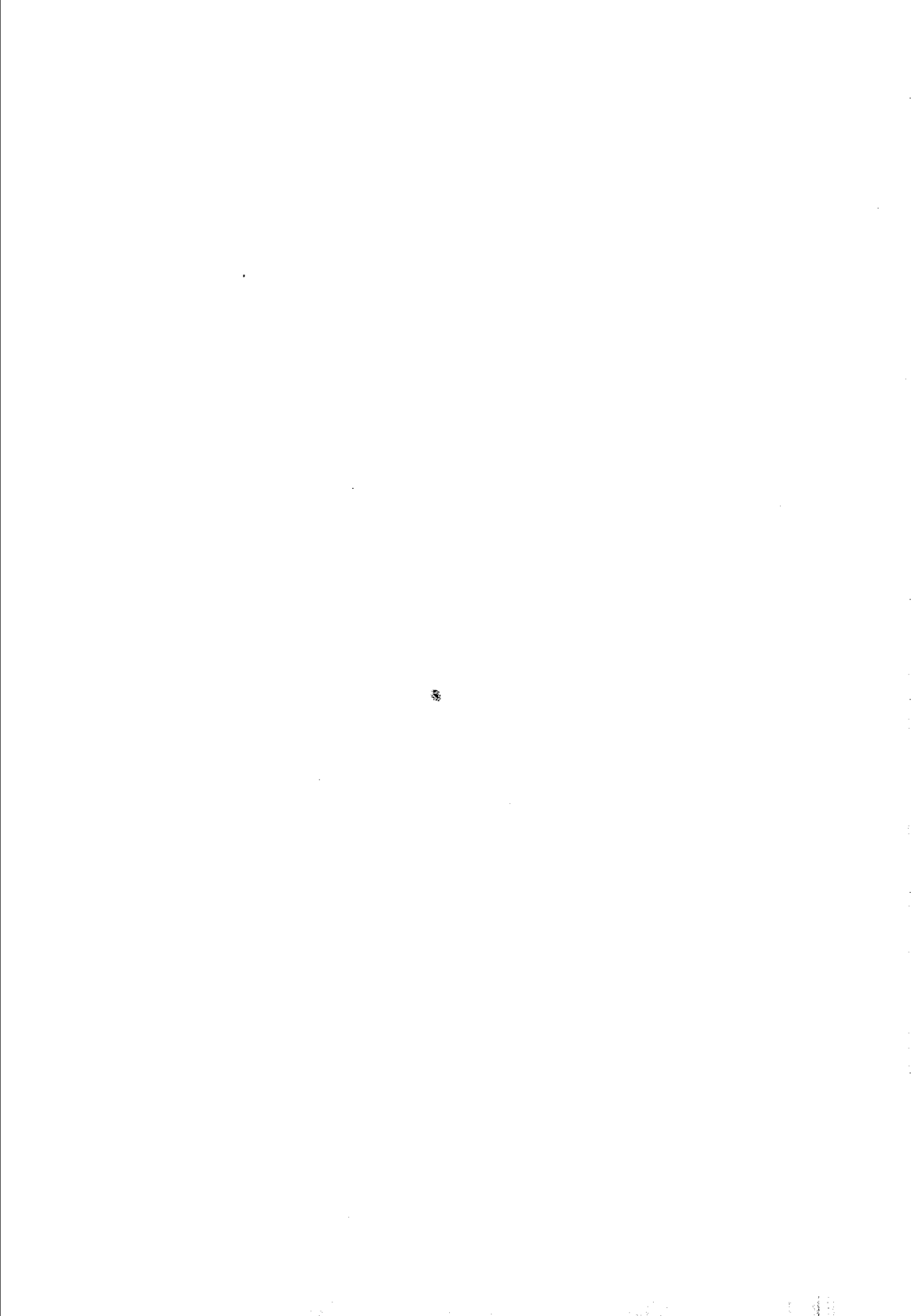
## 기초편

문헌해독 .....	리득춘◆	395
1. 훈민정음언해 .....	◆	395
2.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발취) .....	◆	404
3. 룡비어천가(발취) .....	◆	409
4. 월인석보 .....	◆	426
5. 두시언해 .....	◆	436
6. 동 동 .....	◆	449
7. 서경별곡 .....	◆	459
8. 신라향가 .....	◆	465
9. 균여향가 .....	◆	478
10.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	487
11. 구결문 .....	◆	494

# 고 대 편



임신서기석



# 조선민족의 언어력사관과 문자관

리 득 춘

어떠한 민족이든지 자기언어와 그리고 문자에 대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선호한다. 우리 민족도 우리의 말과 글이 있음으로 하여 자긍심을 갖고있으며 세세로 그것을 이어오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넘어선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말과 우리 글의 력사에 대하여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물론 력사비교언어학과 언어형성사라는 학문적범위에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 민족어에 대한 력사관이 비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선반도 남북 학자들의 부동한 조선어력사관<sup>1)</sup>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 자체가 약간의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념원에서 아래에 한두가지를 진맥해보려 한다.

첫째, 조선어 계통설과 형성사 문제.

조선어의 계통설과 조선어의 형성사 문제에서 한국과 조선의 론점들은 심각한 대립을 하고있다. 한국 학자들사이에도 부동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조선어의 알타이어족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조선어는 만주·통구스어, 몽골어, 터키어와 함께 알타이제어에 속하며 부족되는 점은 있어도 이들 언어와의 공통특질은 보유하고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북의 학자들은 조선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것을 실지 똑똑히 론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조선어는 저 알타이산줄기너머와 같은 머나먼 다른 지역에서 형성되어 옮겨온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인류력사의 아득한 려명기부터 뿌리 내려 형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어의 계통문제는 알

---

1) 아래에 언어사관이라 한다.

타이어설과는 손을 끊고 근본적으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한국의 대표적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민족은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만 해도 오늘의 조선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는 여러 언어가 말해지고있었다고 한다. 알타이 공통어로부터 원시한국어가 갈라져 나왔는데 실질상 이는 북방계 제어를 산생시킨 부여공통어와 남방계 제어를 산생시킨 한공통어로서 이 두 가지 언어는 같은 언어가 아니었다고 한다.<sup>3)</sup> 이와는 달리 이북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조선어는 바로 조선땅에서 살던 《조선옛류형사람》의 원인단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고인단계를 거쳐 신인단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어형성의 네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어는 신석기시대에 이미 확고히 형성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매우 이르다. ㉡조선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합법칙적과정을 차례로 다 거쳤다. ㉣조선어는 《혼혈종》이거나 《혼성어》가 아니라 구성상 순결성을 보장하고있는 단일한 언어다.<sup>4)</sup>

계통설에서의 이러루한 차이에 대하여 각자 자기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딱히 흠잡을 그릴만한 근거도 서로 불충분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남들의 리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우선 우리들 자신이 결정적인 연구에 몰두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어속에 내포된 알타이어적인 많은 요소들을 현시점에서는 석연하게 설명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면 그를 해명하기 위해 방법을 취해야 할것이다.

알타이 제어어의 비교연구는 이미 2백년의 역사를 기록하고있다. 몇세대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오랜 조사연구를 거쳐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언어의 역사발전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리론 및 실재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중국 북방(양자강 이북)에는 알타이어계통의 몽골어 제어, 들꺨어 제어(turkey), 만주·퉁구스 제어 등 20여가지나 있다. 중국학자들은 이런 언어들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2) 김수경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89년, 평양출판사. 류렬 《조선말력사》 1권, 1990년, 사회과학출판사.

3) 리기문 《국어사개설》, 1972년 개정판, 민중서관. 《한국문화사대계》(v)중의 《조선어형성사》, 1967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 류렬,동상,p15

#### 4 조선어언어력사연구

해오고있다. chaoke(朝克)와 같은 젊은이는 3년이란 시간을 들여 만주어, 시버어, 허저어, 오르손어, 오원커어(에벤키어)를 현지답사하면서 《만주·통구스 제어 비교연구》라는 저서를 펴내고 만주어와 시버어는 만주어군에 속하고 허저어는 남통구스어군에 속하며 오르손어와 오원커어는 북통구스어군에 속함을 확신했다. 비겨보면 우리의 연구는 각자 자기나름대로 글에서 글로, 문헌에서 문헌으로만 옮겨다니는것 같고 현지실체조사와 대비가 부족한듯한감을 준다. 실제 같은 계통의 산 언어가 있음에도 외면하고 산 언어와의 대비와 비교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쟁점은 쟁론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것이다. 다른 한 방면 우리가 선인들이 연구한 계통적언어분류를 무작정 부인하면서 《조선어는 조선어다.》식으로 계통설을 외면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또한 너무도 비과학적이고 비학술적인것이 아닐수 없으며 일종 변태적인 허무주의가 아닐수 없다.

둘째, 문헌에 대한 신빙여부문제.

우리 글자 《훈민정음》이 15세기에 창제되었다는데 대하여 이전에는 남북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고 그 창제자에 대하여도 비록 세종 친제설과 세종 명제설, 그리고 8신하 협찬설의 차이는 있어서도 모두 세종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았었다. 《조선말력사》에서는 《세종을 중심으로 하여 집현전의 성삼문, 신숙주를 비롯한 당대의 이름난 언어학자들인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1444년 드디어 새로운 민족글자를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을 완수하였다.》고 하였다.<sup>5)</sup>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선학자들중 세종의 훈민정음창제를 의심하는 설이 출현하였다. 그것인즉 《고조선 시초의 신지글자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림토 글자에 이르고 그것이 고조선말기, <삼한> 초기에 훈민정음의 <옛날체(비인체)>로 발전하였으며 또다시 부단한 변천, 발전과정을 밟아 훈민정음(지금체)으로 계승 완성되었다》는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옛날체의 글자라는것은 곧 <가림토>글자를 가리키는것이고 그것이 다름아닌 <비인서>(肥人書)이며 또 <아비루 글자>이며 이른바 <신대 글자>라는것을 잘 말해준다.》고 한다.<sup>6)</sup>

《신대문자설》이나 《가림토설》은 실제상 이미 부정되었거나 학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릉 발견과 함께 종전의 주장을 고쳐 신지글자, 가림토, 신대문자(아비루글자, 비인서)를 하나로

5) 《조선말력사》 2권, 1992년, 사회과학출판사, p485.

6)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1994년, 사회과학출판사, p97.

런결시키고있다. <단군릉이 발견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언어학계에서는 단군시기부터 고조선에서 써오던 고유한 민족글자가 있었다는것을 밝히었다.> 7)고 하는 주장은 이남에도 있다. <고려때 지은 <단군세기>에 훈민정음과 동일한 가림다문(假令多文)이 전제되어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正音의 원형은 세종임금때 비로소 창제된것이 아니고 우리 겨레의 고유언어가 그 독자성을 오랫동안 지켜온것과 더불어 우리의 고유글자 역시 오랜 문자사를 가졌음이 확실하다.> 8)고 하는것과 같은 주장이 바로 그러하다. 아직 믿을만한 문헌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1911년 계연수가 지었다는 <한단고기>중의 <단군세기>에 의해 3세단군인 가림이 을보름에게 명하여 만들었다는 이른바 5000년전의 가림토 38자에서 훈민정음이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가림토 글자가 몽골의 어느 동굴과 중국 동북의 경박호암벽에 새겨져있다고 하며 연길 발해박물관 자료에 고증이 있다9)고 하지만 그것의 탁본이나 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소개한것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있다.

훈민정음의 기원을 동북아 고대문자와 런결시키는 외국 학자들도 있다. 동북아 고대문자에 대하여는 연구하고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보건대 고대의 동북아에 문자가 없었을수 없으며 한자의 시초 형태든 그 어떤 문자이전의 형태든 있었을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력사 기록에 가끔 나오는 신지(神志)글자에 대하여도 계속 범위를 넓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 고대문자가 곧 가림토라거나 혹은 일본의 신대문자와 관련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훈민정음의 옛날체라고 단언하는것은 너무도 현실적이 아닌 때이른 결론이 아닐수 없다.

셋째, 리념과 학술견해와의 관계문제.

한국의 대표적학자들은 오늘의 조선어가 중세조선어의 계속이요, 중세조선어는 신라어를 근간으로 형성된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고대조선어라는것은 신라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한국어형성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언어의 단일성은 통일신라 이후에 성취되기 시작했던것이다.>라고 썼다. 이북의 학자들은 단군조선때로부터 그 수도인 평양은 민족어의 형성발전의 중심지였으며 그후의 종족국가들도 평양을 중심으로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려가 국토를 통일하고 수도를 개

7) 상동, p11.

8) 송호수 《위대한 민족—한글은 세종 이전에도 있었다》, 1989년, 서울.

9) 《인쇄계》, 1996년 10월 5일, p97.

## 6 조선어언어역사연구